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Attachment and Deviant Peers on Juvenile Recidivism

권오용, 이수진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Oh-ryong Kwon(orkwon4935@hanmail.net), Su-jin Lee(playtherapy1@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 중1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비행은 중3 180명(10.2%)에서 고3 278명(15.7%)으로 1.5배 증가하였으며, 비행중단 138명(72.7%), 비행지속 42명(23.3%)으로 나타나서 중단보다 지속이 더 적으며, 고3시기에 비행경험이 236명(85.6%)으로 나타났다. 둘째,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애착은 중3에서는 부모애정이 부(-)의 영향, 고3에서는 부모감독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애착에서 또래신뢰는 중3에서, 비행친구는 중3과 고3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애착과 비행친구가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감독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며, 비행친구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애정, 친구애착(교우, 신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복지 실천을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 중심어 : | 청소년비행 | 비행지속 | 부모애착 | 친구애착 | 비행친구 |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deviant peers on juvenile recidivism. The study analyzes a panel of Korean children, youths, and students who are in first year of middle school, and obtain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juvenile recidivism increases by 1.5 times, from 180 people (10.2%) in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o 278 people (15.7%) in third and last year of high school. 138 people stopped deviant behaviors (72.7%) and 42 people continued such acts (23.3%), showing that children come to stop deviant acts more than not. 236 people (85.6%) are found to have experienced engaging in deviant behaviors during third year of high school. Second, in terms of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deviant peers in juvenile deviance, particularly attachment to parents, parental affection i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in third year of middle school, while parental supervision i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In peer attachment, peer trust is found to have positive (+) effects in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deviant peers are found to have positive (+) effects in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third year of high school. Third, in terms of the effect of youth attachment and deviant peers in juvenile recidivism, parental supervision has a negative (-) effect and deviant peers have a positive (+) effect. However, parental affection and peer attachment (friendship, trust) are not found to have an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the current study narrates suggestions for the practice of youth welfare.

■ keyword : | Deviant Youth Behaviors | Recidivism | Parental Attachment | Peer Attachment | Deviant Peer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발달특성상 변화와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주위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자아인식의 미성숙, 정서문제로 인해 정신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비행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1]. 또한 범죄백서[2]에서 청소년범죄는 단순비행에서 폭행,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범죄의 재범비율이 2010년 35.2%, 2014년 38.3%로 나타나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지속은 청소년 개인문제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이다. 이런 비행지속은 청소년시기에 일어나는 문제이면서, 성인기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청소년비행지속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3]. 또한 청소년비행연구를 국회도서관에 검색하면, 학위논문 1866건, 학술지 2,151건으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비행지속연구는 학위논문 1건, 학술지 6건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4].

청소년비행연구는 사회유대이론(부모, 친구의 애착)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어 왔다[5-9]. 사회유대이론은 한 인간이 그가 속해있는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와 관련지어서 유대가 약해지면 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10]. 이는 부모애착이 약해지면 비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비행이 부모애착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 이처럼 청소년비행이론에서 부모애착, 친구애착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5-9]. 특히 부모애착이 청소년비행에 미친 영향에서 부모애정[7][11][12], 부모감독[6][13] 등의 요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익중·이은주[17]의 연구에서 청소년은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절친한 친구가 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14].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비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처럼 친구요인에서 또래 신뢰는 비행을 감소하는 요

인으로, 비행친구는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14-18].

이와 같은 청소년비행 연구는 특정 시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되었다[5][6][9][19][22]. 최근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이용하여 종단연구가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12][16][20][21]. 특히, 청소년의 연령별 비행영향 효과[10], 청소년의 비행지속효과[3][8][21]의 연구에서 비행친구가 비행지속의 정(+)의 효과를 보이나, 애착이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발달 시기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애착이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비행지속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애착과 비행친구는 청소년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애착과 청소년비행

Hirschi(1969)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규범과 규율을 지키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범죄행위를 이해하려고 접근한다. Hirschi는 규율을 준수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간에 유대관계가 형성될 때 이루어지며, 이러한 유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타인(Significant other)’ 과의 애착(Attachment), 규칙을 준수하는 신념(Commitment), 일상생활활동에 참여(Involvement), 그리고 법의 합당성에 한 신뢰(Belief)의 4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이런 4가지 요소가 약화하게 되면 비행이나 범죄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그는 청소년의 사회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정, 또래와의 유대를 강조하면서, 결국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가정, 또래와의 유대 관계가 약화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37]. 애착은 한사람이 타인에게 가지고 있는 가까운 애정적 결속, 존재감, 동일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의미한다고 하다[37]. 이런 사회유대이론은 인간이 일탈적 잠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일탈적 동기가 사회적 유대로부터 통제받고 있기 때문이며, 개인이 비행과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개인과 사회 간의 유대가 약화하거나 와해하였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10].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친구·학교에 대한 애착 중에서도 부모애착이 가장 중요한 요인[9][10][24][39]이며, 부모와 친구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7][9][24][25]. 또한 부모애착에서 가족체계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이 부모애착 친구애착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을 애정과 감독으로 구분하고, 부모구성을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로 구분하며, 친구애착을 교우관계와 친구신뢰로 구분하여, 이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비행친구와 청소년비행

차별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은 차별 교제와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학습기제에 포함해서 만든 이론으로 비행에 대해 긍정적 태도나, 가치, 규범 등을 가진 친구들과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청소년비행이 유발된다고 밝혔다[25][26]. 청소년들은 평소 친한 친구들과와의 교류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관, 기준에 대한 태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비행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법 위반을 반복하여 비행을 범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14][27]. 비행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를 만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보다 이미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다른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만나 서로 의지하고 비행을 합리화 하게 되어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14]. 비행친구집단은 특정한 한 명을 소외시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한하고, 무시나 비인격적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구타,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치기 등의 비행을 유발할 뿐 아니라 [28-30], 무단기출, 약물사용, 성폭행, 집단폭행 등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4][30]. 이처럼 비행친구와 친밀한 접촉이 청소년의 비행을 촉발하는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9][13][23].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비행친구는 청소년비행에 높은 수준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비행지속에 대한 고찰

비행지속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학위논문 1편, 학술지 논문 6편으로 매우 미흡하다[4]. 이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철[12]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별 비교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추이는 부모애정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수준으로 중기에서 후기까지 지속하였다. 또한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수준으로 중기에서 후기까지 지속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이 연령별로 보면, 부모애정이 지속적으로 비행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비행친구는 비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2].

하영진[3]은 중2에서 고3까지 비행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758명을 대상으로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행지속효과는 음주(45.6%), 흡연(26.6%), 무단결석(9.9%), 성관계(6.0%), 놀림(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차별접촉에서 비행친구가 가장 많은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유대이론에서는 관여, 부모애착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런 결과는 박진희[8]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3]. 이는 청소년의 비행에서 부모애착은 부(-)의 영향, 비행친구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화[31]는 부산광역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1차 550명을 조사하고 9개월 지난 후에 동일대상을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비행지속이 42%(남자 25%, 여자 17%)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부(-)의 영향을 비행친구는 정(+)의 영향을 미치며, 우울, 부모와 의사소통, 학업성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이상의 선행연구고찰에 의하면 청소년의 비행지속은 음주, 흡연 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친구는 비행지속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은 선행연구에 차별화를 위하여 부모애정과 부모감독으로 구분하고, 부모체계를 도입하여 애정과 감독이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친구애착에서도 교우관계와 친구 신뢰로 구분하여 교우관계와 친구신뢰가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에 대한 상대적 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중1패널을 이용하였다[32]. 중1패널은 2010년에 중학교 1학년 2,351명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8개년에 걸쳐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3차(중3)에서 제6차(고3)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들 자료에서 비행에 대한 무응답 588명을 제외하고 유효한 1,763명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856명(48.6%), 여자 907명(51.4%), 부모구성은 친부모 1,476명(83.7%), 기타 287명(16.3%), 나이는 16세 195명(11.1%), 17세~19세 1,568명(88.9%)으로 구성되어있다.

2. 측정도구

2.1 애착

선행연구의 고찰에 의해서 애착은 부모애착, 친구애착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애착은 허모연[33]의 부모양육태도 중에서 애정 4문항과 감독 4문항, 친구애착은 민병수[34]의 학교생활적응에서 교우관계 4문항과 Armsden & Greenberg[35]의 애착척도에서 또래신뢰 3문항으로 구성한다[33-35]. 이들 척도는 평균이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 사용한 신뢰도는 부모감독 .767, 애정 .827, 교우관계 .737, 또래신뢰 .754로 신뢰성을 확보한 척도이다.

2.2 비행 친구

비행친구는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를 사용하였다. 비행친구는 0에서 5 까지 한정하며, 5명이 넘으면 5명으로 하였다.

2.3. 비행 경험

비행은 담배, 술, 무단기출, 무단결석 따돌림, 구타, 절도 등 14가지로 구성하였다. 비행경험은 비행경험 횟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신뢰구간 하위 95%에 있으면서 비행행동 경험에서 유에 응답한 청소년을 비행경험으로 하였으며, 비행지속은 비행중단(중3=유, 고3=무) 비행지속(중3=유, 고3=유), 신규(중3=무, 고3=유), 비행없음(중3=무, 고3=무)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 2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현황은 빈도분석으로 빈도와 비율을 사용하며, 변수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으로 평균, 편차를 사용하였다. 둘째, 변수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셋째, 비행현황 분석은 비행경험횟수의 평균에서 신뢰구간 하위가 95%에 속하면서, 비행행동 경험유무로 구분하여 구성비로 분석하였다. 넷째,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독립변수의 상대적 강도파악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비행 현황

연구대상자의 청소년비행 현황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중3 에서 비행을 평균으로 살펴보면 1위 놀림조롱 평균 9.0회(SD 19.02), 2위 담배 평균 6.55회(SD 4.98), 3위 물건뺏기 평균 6.40회(SD 6.42), 4 위 무단결석 평균 5.9회(SD 9.18)순위이며, 비행경험유 무로 살펴보면 1위 담배 69명, 2위 놀림, 조롱 60명 3 위 무단결석 58명, 4위 도박게임 39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3의 비행현황을 평균으로 살펴보면 1위 물건 훔치기 평균 15회(SD 0), 2위 도박 게임 13.54회 (SD 25.9), 3위 놀림 조롱 평균 11.92회(SD 20.9)의 순위이며, 비행경험 유부는 1위 술 210명, 2위 담배 156명, 3위 무단결석 97명, 4위 도박게임 3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비행현황 기술통계

구분	중 3				고 3			
	N(명)	최대	M	SD	N(명)	최대	M	SD
담배	69	20	6.55	4.98	156	20	6.88	4.80
술	35	10	2.51	2.34	210	20	3.97	4.08
무단결석	58	50	5.90	9.18	97	70	6.70	11.06
가출	38	40	5.37	8.41	12	40	7.08	11.24
놀림,조롱	60	100	9.00	19.02	24	100	11.92	20.90
집단따돌림	11	7	2.45	2.38	1	1	1.00	0
패싸움	7	2	1.29	.49	0	0	0	0
심하게때림	12	10	4.25	3.25	6	12	3.50	4.46
협박하기	6	10	3.17	3.43	3	1	1.00	0.00
물건뺏기	10	20	6.40	6.42	2	3	2.00	1.41
물건훔치기	7	15	3.71	5.02	1	15	15.00	0
성관계	3	1	1.00	0.00	26	50	7.73	11.28
성폭행	2	5	3.00	2.83	0	0	0	0
도박게임	39	30	4.95	7.54	35	100	13.54	25.80

다음으로 비행지속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비행지속 현황

구분	중3 (명)	고3 (명)		비율 (%)		
		중3-고3 지속(중단)	고3 첫 경험	중3-고3 지속	고3 첫 경험	중3-고3 증가
담배	69	40 (29)	116	58.0	74.4	226
술	35	31 (4)	179	88.6	85.2	600
무단결석	58	1 (57)	96	1.7	98.9	167
가출	38	0 (38)	12	0	100	-68
조롱	60	0 (60)	24	0	100	-60
따돌림	11	0 (11)	1	0	100	-91
패싸움	7	0 (7)	0	0	-	-100

구타	12	1 (9)	6	8.3	85.7	-71
협박	6	1 (5)	3	16.7	75.0	-50
물건뺏기	10	0 (10)	2	0	100	-80
훔치기	7	1 (4)	1	14.3	50	-78
성관계	3	3 (0)	26	100	89.6	900
성폭행	2	0 (2)	0	0	0	-100
도박	39	3 (36)	32	7.7	91.4	-10
전체	180	42 (138)	236	23.3	84.9	154

비행지속은 비행경험회수 평균에서 신뢰구간 하위 95%범위를 비행경험으로 간주하고, 비행행동 유무에서 비행을 경험한 자로 중3에서 고3까지 비행을 지속한 분류는 1, 비행없음, 2, 중3에 비행을 하였으나, 고3에 중단한 자, 3, 고3에서 처음으로 비행을 경험한 자, 4, 중3에서 고3까지 비행을 지속한 자로 구분하였다. 고3에 비행중단한 자는 138명으로 76.6% 중단하였다. 중단한 비행은 조롱 60명, 무단결석 57명, 무단가출 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3에 처음 비행을 경험한 자는 236명으로 전체의 84.9%에 해당하며, 술 179명, 담배 116명, 무단결석 96명의 순이다. 중3에서 고3까지 비행을 지속한 것은 42명으로 담배 40명, 술 31명, 성관계 3명, 도박게임 3명의 순이며, 중3전체 비행자의 23.3%에 해당한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N=1,768)			
구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3	애착	부모애정	3.021	.660	
		부모감독	3.156	.659	
		교우관계	2.783	.377	
		또래신뢰	3.040	.641	
	비행친구	1.221	.482		
고3	애착	부모애정	3.028	.546	
		부모감독	3.095	.572	
		교우관계	3.139	.380	
		또래신뢰	3.177	.536	
	비행친구	1.276	.372		

부모애착에서 부모애정의 평균은 중3 3.021점, 고3 3.028점이며, 부모감독은 중3 3.156점, 고3 3.095점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에

착에서 교우관계의 평균은 중3 2.783점, 고3 3.139점이며, 또래신뢰는 중3 3.040점, 고3 3.177점으로 친구에 대한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비행친구는 중3 1.221명, 고3 1.276명으로 나타났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중3에서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모형의 적합성은 카이제곱(X²)값이 89.320(p<.001)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적합한 모형을 알 수가 있다.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청소년들이 계속하여 비행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류한 예측 성공률이 83.829%로 나타났다. 애착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애정, 부모감독, 교우관계, 비행친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요인과 친구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애정(EXP(B) .768)은 .768배, 부모감독(EXP(B) .784)은 .784배로 청소년비행을 감소하는 영향, 교우관계(EXP(B) 1.490)는 1.490배, 비행친구(EXP(B) 2.384)는 2.384배로 청소년비행을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애착, 비행친구와 비행의 관계(중 3)

구분	B	Wald	유의수준	Exp(B)	
중3 시기	친부모	.081	.060	.807	1.084
	편부모	.589	2.571	.109	1.802
	계부모	-.782	.880	.348	.457
	부모애정	-.264	5.716	.017	.768
	부모감독	-.243	4.975	.026	.784
	교우관계	.399	4.124	.042	1.490
	친구신뢰	-.004	.001	.975	.996
	비행친구	.869	60.762	.000	2.384
성공 예측률	83.4%				
-2log 우드	1495.073				
Nagelkerke R ²	.084				
모형 X ²	89.829***				

*p<.05, **p<.01, ***p<.001

다음으로 청소년 비행지속은 고3에 '비행 없음'으로 준거로 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부모구성에서 다중공선성 문제로 편부모는 제외시켰다. 모형의 적합성은 카이제곱(X²)값이 420.340(p<.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모형이 적합하다.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청소년들이 계속하여 비행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류한

예측 성공률이 68.2%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비행이 고3에 비행을 중단한 경우를 살펴보면, 친부모, 부모감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계부모, 부모애정, 교우관계, 친구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EXP(5.003)는 비행중단을 5배 증가, 부모감독(EXP(B) .688)은 비행중단을 .688배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비행이 고3에서 처음 경험한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감독, 친구신뢰, 비행친구는 유의한 영향을, 친부모, 계부모, 부모애정, 교우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애착, 비행친구와 비행지속의 관계

구분	B	Wald	p	Exp(B)	
고3 중단	친부모	1.610	7.350	.007	5.003
	계부모	.159	.000	.998	1.173
	부모애정	.280	1.755	.185	1.323
	부모감독	-.374	3.912	.048	.688
	교우관계	-.388	1.645	.200	.678
	친구신뢰	.078	.134	.715	1.081
고3 첫 경험	비행친구	.201	.350	.554	1.223
	친부모	.434	.448	.503	1.544
	편부모	.692	1.058	.304	1.998
	계부모	.729	.554	.457	2.074
	부모애정	-.190	2.039	.153	.827
	부모감독	-.411	10.772	.001	.663
중3-고3 지속	교우관계	-.048	.054	.815	.953
	친구신뢰	.357	5.814	.016	1.430
	비행친구	2.942	247.545	.000	18.957
	친부모	-.569	1.765	.184	.566
	계부모	.734	.000	1.000	2.084
	부모애정	.151	.194	.659	1.163
중3-고3 지속	부모감독	-.649	4.562	.033	.522
	교우관계	.119	.053	.818	1.126
	친구신뢰	.129	.126	.723	1.137
	비행친구	3.278	88.115	.000	26.511
	성공예측률	68.2%			
	-2Log dnem	2440.890			
Nagelkerke R ²	.255				
모형 X ²	420.340***				

*p<.05, **p<.01, ***p<.001 준거(BASE) : 비행없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감독(EXP(B) .663)은 비행 첫 경험을 .663배 감소시키며, 친구신뢰(EXP(B) 1.430)은 1.430배, 비행친구(EXP(B) 18.957)은 18.957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3에서 고3까지 비행지속을 살펴보면, 부모감독과 비행친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친부모, 계부모, 부모애정, 교우관계, 친구신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

모감독(EXP (B) .663)은 청소년비행지속을 .663배 감소시키고, 비행친구는 비행친구(EXP (B) 26.511)은 26.511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립변인의 상대적 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구성, 애착요인, 비행친구를 독립변수로, 청소년비행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B	베타	t	p	VIF
친부모	-.066	-.022	-.986	.324	1.072
계부모	-.069	-.006	-.263	.793	1.061
부모애정	-.038	-.021	-.866	.386	1.327
부모감독	-.153	-.092	-3.748	.000	1.295
친구신뢰	.106	.060	2.306	.021	1.453
교우관계	-.011	-.005	-.172	.863	1.519
비행친구	1.082	.428	19.759	.000	1.020
R2	.207				
Adj R2	.204				
F	84.151				

* p<.05, ** p<.01, *** p<.001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모형의 설명은 20.7%이며 유의미하다(F=84.151, p<.001).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상대적 강도는 표준화계수로 살펴보면, 1위 비행친구($\beta=.428$), 2위 부모감독($\beta=-.092$), 3위 친구신뢰($\beta=.060$)의 순으로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 중1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비행은 비행횟수는 중3에서 비행을 평균으로 살펴보면 1위 놀림조롱 평균 9.0회(SD 19.02), 2위 담배 평균 6.55회(SD 4.98), 3위 물건뺏기 평균 6.40회(SD 6.42), 4위 무단결석 평균 5.9회(SD 9.18)

순위이며, 비행경험유무로 살펴보면 1위 담배 69명, 2위 놀림, 조롱 60명 3위 무단결석 58명, 4위 도박게임 39명으로 나타났다.

고3의 비행현황을 평균으로 살펴보면 1위 물건 훔치기 평균 15회(SD 0), 2위 도박 게임 13.54회 (SD 25.9), 3위 놀림 조롱 평균 11.92회(SD 20.9)의 순이며, 4위 무단기출 평균 7.08회(SD 11.24)의 순위이며, 비행경험 유부는 1위 술 210명, 2위 담배 156명, 3위 무단결석 97명, 4위 도박게임 3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3에서 고3까지 비행지속은 42명으로 담배 40명, 술 31명, 성관계 3명, 도박게임 3명의 순이며, 중3전체 비행자의 23.3%에 해당한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36]와 일치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청소년비행은 청소년발달과정에 따라 비행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3에서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애정과 부모감독은 감소의 영향을 미치며, 교우관계와 비행 친구는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부모, 편부모, 계부모, 친구신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철[13]의 연구에서 애착은 청소년 초기에 부모 애착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13]. 이는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이 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과 일치한다[10]. 애착에서 부모애정[7][12][13]과 감독[6][9][11-13][17]이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한다. 이 처럼 부모의 애정과 적절한 감독은 청소년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애착과 비행친구가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먼저 청소년비행이 고3에서 중단하는 경우는 독립변수 8개 요인에서 친부모와 부모감독 2개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3에 청소년비행을 첫 경험에 미치는 요인은 독립변수 8개에서 부모감독은 감소의 영향을 친구신뢰와 비행친구는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5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3에서 고3까지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부모감독은 감소하는 영향을 비행친구는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6개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정은 중3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나서, 고3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감독은 청소년비행 지속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는 중3에서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며, 고3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친구신뢰는 중3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3에서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는 비행지속을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표준화 계수로 변인들의 상대적 강도는 1위 비행친구, 2위 부모감독, 3위 친구신뢰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감독이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 [3][23]와 일치한다. 또한, 비행친구가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3][8][13][23]가 일치하여 본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부모감독은 청소년과 의사소통 및 합리적인 감독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비행친구는 청소년이 비행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와 서로 의지하면서 비행을 합리화하게 되어서 비행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감독, 비행친구, 친구신뢰는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한계와 실천적 제언을 한다.

2.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애착과 비행친구가 청소년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제언과 한계점을 기술한다[11].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한다[11].

첫째,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비행친구는 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친구신뢰도 역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친구신뢰는 약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행친

구는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건전한 친구관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여기활동교육프로그램을 마련이 필요하다[40].

둘째, 청소년비행에서 부모역할은 애정과 감독에서 비행을 감소시키는 보호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정은 비행에 부(-)적인 영향력의 추세가 감소하였으며, 부모감독은 비행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이 추세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합리적 관계로 정립하여 부모역할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영향력은 어린 시절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므로 중학생시기에 개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모는 애정, 배려 등 합리적 방법으로 청소년을 적절히 감독하는 일관성 있는 양육이 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비행친구가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은 중3보다 고3까지 지속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행항목을 살펴보면 술(음주)은 중3에서 35명에서 고3에 210명(지속 31명, 첫 경험 179명), 담배(흡연)는 중3에서 69명에서 고3에 156명(지속 40, 첫 경험 116명), 성관계는 지속 3명, 첫경험 26명으로 고3 전체 276명의 8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은 일반적으로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흡연과 음주를 시도가 증가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우 또는 또래친구, 혹은 술과 담배를 하는 친구들을 따라서 하는 행위가 많아진다[39]. 따라서 청소년들이 비행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활동 동호회 활동[37] 등으로 건전한 친구관계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등 학교복지실천 차원에서 체계적인 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한다.

첫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여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속한 변인으로 사용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청소년과 인터뷰를 병행하여 질적·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비행을 비행경험 유무와 비행행동의 회수로 파악하여 사용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는 비행의 유형에 따른 가중치를 부과하여 청소년비행을 보다 정밀하게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비행에 대한 주요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효과만을 연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조절효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정재희, *위기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비행유형에 미치는 영향*,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법원연수원, 2017 범죄백서, 법원연수원, 2018.

[3] 하영진,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21, 제7권, 제6호, pp.195-210, 2016.

[4] <http://di.nanet.go.kr/>.

[5] 고영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6] 김선애, “가정, 학교, 친구 관련 변인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4권, 제1호, pp.101-126, 2007.

[7] 노성호,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가정, 학교,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 *형사정책연구*, 제63권, pp.295-330, 2005.

[8] 박진희,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9] 손운진,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가족 및 친구관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0] T. Hirschi,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11] 권오용, 이수진,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중학교와 고등학교시기의 비교,”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15권, 제2호, pp.115-138, 2018.

[12] 김준호, 정혜원, “부모애착과 비행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성별간 다집단분석,” *형사정책연구*, 제78권, pp.125-148, 2009.

[13] 이철, “가족, 학교, 비행친구의 비행영향 효과의 연령

별비교,” *한국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2호, pp.31-54, 2011.

[14] 이재영, 공태명,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청소년 일탈행동,” *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3호, pp.61-82, 2010.

[15] 현다경, 청소년의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및 지역사회환경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인식 및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6] 정익중, 이은주, “비행포래집단과 청소년비행간의 종단적인 역동적 관계,”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1호, pp.119-144, 2010.

[17] 남진열, 청소년 잠재비행의 실제 비행화 결정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8] 이혜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과 자아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19] 최현영, 중학생의 일탈행동 관련 변인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0] 이철,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인과관 계에 대한 발전론적 연구: 손베리 모델의 부분 검증,”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1호, pp.177-214, 2009.

[21] 이은주, “청소년기의 비행친구 선택과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 지속효과와 최신효과,”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pp.243-267, 2008.

[22] 기광도,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2호, pp.61-86, 2012.

[23] 박현수, 정혜원, “초기 비행청소년과 후기비행 청소년의 비행경로 비교: 비행친구, 부모애착, 자기통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 pp.5-34, 2010.

[24] 유순화,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예측,”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289-315, 2003.

[25] E. H. Sutherland,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 Lippincott, 1947.

[26] 황성현, 이강훈,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사회학습, 사회유대, 일반긴장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 pp.127-145, 2013.

[27] 황성현, “청소년 비행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 검증,”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4권, pp.225-250, 2015.

[28] 김인경, 김은정, 정태연,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0권, 제

2호, pp.245-25, 2001.

- [29] 박미선, 김용수,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과 그 효과,” 한국동성정신과학회, 제6권, 제2호, pp.247-257, 2003.
- [30] 신혜정, 여자 가출청소년의 비행 또래집단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31] 김희화, “청소년의 초기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1호, pp.143-162, 2001.
- [32] 한국청소년정책연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7차 조사데이터 유저 가이드, 서울, 2017.
- [33]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 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제12권, 제2호, pp.170-189, 2004.
- [34] 민병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35] G. C. Armsdem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pp.427-454, 1987.
- [36] 이동엽, 청소년 비행의 변화궤적에 대한 잠재계층 분류 및 예측요인 탐색,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37] 신재현, 김상운, “초등학교 학생의 애착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pp.227-235, 2015.
- [38] 이시연,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759-771, 2014.
- [39] 정익중, 김세완, 신희주, 박미경, “흡연, 음주, 인터넷 게임 이용의 공존이환이 청소년의 학교 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제40호, pp.145-171, 2017.

저 자 소 개

권 오 용(Oh-ryong Kwon)

정회원



- 1984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석사)
- 1998년 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박사)
- 2018년 8월 :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석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이 수 진(Su-Jin Lee)

정회원



- 1996년 2월 :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 2002년 8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 석사 졸업
- 2015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박사)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복지, 상담복지